

[로스쿨 소식]

로스쿨 진출 국내 1위 명성 6년째 이어가는 고려대학교

- 2023 로스쿨 입학생 출신대학 고려대 전국 최고(428명/19.8%)
- 학부 시절부터 양질의 법학 교육 접하며 우수 인재로 성장



〈고려대학교 전경〉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진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은 고려대로 밝혀졌다.

최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공개된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은 고려대가 428명(19.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 399명(18.51%), 연세대 328명(15.21%)가 뒤를 이었다.

고려대는 최근 3년간 로스쿨 진학자 배출에서 국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2023년(428명), 2022년(431명), 2021년(419명),

2020년(372명), 2019년(382명), 2018년(364명) 등 최근 6년간 로스쿨 합격자에서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했다.

고려대는 로스쿨 체제로 변화하기 이전부터 전통 깊은 법대의 영향력으로 인해 그 전통이 자유전공학부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 학부 수준의 법학 교육이 많이 사라져가는 추세에서도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 수업 및 각종 융합 전공 과목들을 통해 학생들이 법학의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로스쿨 소속 교원들이 직접 학부수업을 강의하며 양질의 법학 교육을 이어오고 있다.

신호정 대외협력처장은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의 전통이 흐르는 고려대는 도덕적 인재양성을 추구하는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도 이러한 고대정신을 이어 받아 공적 및 법조 분야 곳곳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학부시절부터 양질의 앞선 법학 교육을 접한 학생들이 로스쿨로 많이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